

## ‘97 문화유산의 해’ 를 보내면서

高 炳 翊

(文化遺産組織委員會 委員長)

[1] 문화유산의 해를 뒤돌아 보기에 시기가 아직 이르다 할 수 있다. 선포식을 지난 1월21일에 거행하고서 지금 9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많은 사업들이 아직 진행중에 있다. 더구나 주요 사업의 마무리가 거의 모두 마지막 몇 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있다. 그러니 지금 뒤돌아 보고서 사업에 대한 회고와 평가를 한다해도 그것은 일종의 중간평가같이 유동적인 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요즘 우리는 폐막식의 날짜를 잡고 그 행사의 내용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사실상으로 종결 단계로 접어든 것이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없게 되었으니 이 해를 보내는 소감을 쓸 수 없는 것도 아니다.

‘97 문화유산의 해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해온 일을 뒤돌아 볼적에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으나 기간과 인원 및 예산 등으로 보아, 그리고 대상분야가 유례없이 대상이 넓었다는 점으로 보아, 일년의 성과에 대해서 대체로 보람과 자공을 느끼게 된다 해도 자만이라는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2] 금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한 정부의 결정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근년에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식과 인식이 자못 높아져가고 있음을 잘 반영하는 것이었다. 1995년에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세곳을(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대장경판전, 서울의 종묘) 지정하고 등재한 것은 국제적으로는 말할 것 없고 국내적으로도 우리의 문화재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전례없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금년에는 수원의 화성과 서울의 창덕궁 두 곳에 대한 유네스코 전문가의 현지 점검이 있었고, 연말에는 이 두 곳도 추가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더구나 일전에 들어온 소식으로, 유네스코에서 우리 나라가 세계문화유산협약국 140여국 가운데서 이사국으로 결정되었다는 반가운 뉴스도 전해져 왔다.

국내적으로도 문화유산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터져나와서 국민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큰 사건은 경부고속전철 노선의 경주 통과문제였다. 경주 시가지와 남산 근처를 전철노선을 통과하게 하느냐의 문제 및 역사의 위치 선정 문제는 천년 고도의 땅속에 무수히 널려있는 문화재를 짓밟는 결과가 될 것을 좌시하느냐 또 한편으로는 주민이나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가 노선 및 역사의 위치와 관련될 것인데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고속전철의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느냐 더 쏟아부어야 하느냐 등의 문제가 얽히게 된 것이다. 이 문제로서 자연 신문·방송에서도 보도가 되고 각계의 여론도 비등하게 되어 이제는 문화재의 문제가 단순히 학자나 호교가

들의 한가한 담론문제만 아니게 되었다.

그 밖에도 국토의 개발과 휴양 오락시설의 급증 및 대형화에 따라 전국 도처에서 문화재가 훼손되고 파괴되는 사례가 나오고 또 이것이 보도됨으로써 자연 국민의 관심도 높아져가고 있다. 금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한 것은 이런 형세를 두고 한 말이다.

[3] 문화유산의 해의 사업은 상당히 전기해서 시작되었다. 작년의 '96 문화의 해'가 아직 진행되고 있을 때 이미 정부는 금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문화체육부의 문화재관리국이 실무를 맡아 위원회의 조직작업을 시작했다.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위원회가 중심체가 되었으며, 여기의 위원으로는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불교학 건축 조경 방송 공연 및 문화단체 대표 등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망라하여 합쳐서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조직위원회는 9월 19일에 첫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민속학의 임동권 교수와 건축의 이광로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서 위원회의 더욱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위원 가운데서 다시 6명을 선정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으로는 한병삼 전 국립중앙박물관 겸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위원장, 신찬균 세계일보 논설위원 겸 문화재위원, 표재순 SBS 프로덕션 사장, 임효재 서울대교수 겸 문화재위원, 김전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 및 당연직으로 문화재관리국장(처음에는 정기영, 뒤에는 정문교 국장)이 위촉되었으며 이 속에서 한병삼 전 관장이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조직위원회 업무의 일차적인 심의를 맡도록 하고 사항에 따라서는 위임 결정도 할 수 있게 하였다. 20명 가까운 조직위원들은 모두가 오랫동안 우리의 전통 문화재와 관계되는 일에 종사해온 전문가들이어서, 첫 모임부터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었다.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는 물론, 민간 조직이지마는 금년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부측의 문화재관리국과 민간측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두 곳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게 되어 그 덕으로 일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재관리국이 처음부터 조직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바탕을 마련해 준 것은 금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해준 정부로서 당연한 일이지마는, 일년 동안 당연한 책무 이상으로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문화재관리국의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이외에 문화유산 관계의 전문가 직원 4명을 조직위원회로 파견해 주어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가능케 했다.

또 한 곳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다. 유형·무형의 문화유산과 민속자료, 그리고 특히 고고미술에 관한 전문가들을 응유하고 있는 이 단체의 활동은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전통문화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결의 여러가지 활동을 소리 없이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단체다. 이번의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의 실제적인 사무는 전적으로 이 단체의 안길수 사무국장과 그 아래의 직원들이 담당하게 되어 그들의 오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이루어 헤아릴 수 없는 도움을 주게 되었다. 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계획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꾸며질 수 있었던 것도 이 단체의 존재 덕이었다.

[4] 조직위원회가 먼저 착수한 것은 물론, 앞으로 일년간의 사업계획의 작성이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번의 '97 문화유산의 해'를 상징하고 그 전체 사업을 포괄하는

그런 주제 표어와 상징휘장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합의하였다.

표어는 지금까지 정부나 사회단체 등에서 너무 많이 작성해서 구호로 내걸어 왔기 때문에 자칫 국민들이 식상하기 쉽고 심지어는 혐오감까지 느끼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된 주제표어는 비교적 좋게 받아들여져서 여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널리 사용해 주었다. 표어는 본래 문화재관리국이 미리 문화재에 관심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부터 일종의 공모의 형식으로 널리 받아서 모아두었던 재료를 토대로 해서, 새로 생긴 조직위원회가 몇 차례의 토의 끝에 결정하였다. 그것은 "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였다. 이것이 공식표어로 정해졌지만, 추가적으로 "문화유산 사랑하여 민족문화 꽃 피우자"도 필요시에는 함께 또는 단독으로 사용토록 정하였다. 선정된 "알고 찾고 가꾸자"의 표어는 그후 특별히 홍보에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일년 내내 다른 여러 단체들에 의해서도 광범하게 쓰이고 있음을 보고 조직위원회는 저으기 만족을 느꼈다.

공식적인 상징휘장의 제작에는 다소의 시간이 걸렸다. 홍익대의 안상수 교수에게 맡겨서 몇가지 도안이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조직위원회, 특히 집행위원회의 의견이 가미되어 훌륭한 작품이 되어 나왔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많이 쓰이던 인동당초무늬와 곡옥의 형태를 상하로 결합시킨 것이다. 위의 인동당초무늬는 상징하는 바가 넓어서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관 장식이나 범종의 비천상 무늬, 또는 타오르는 불꽃까지도 상징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래의 곡선은 신라의 곡옥 등의 장식물을 상징한다 할 수 있다. 이 휘장은 전체를 찬란한 금색으로 칠하고, 그 형태가 전통 위에 현대적 감각을 질게 풍기는 것이 되었다. 몇사람의 의견을 받아 들이면서도 작자의 독창성을 살려서 성공한 작품의 예가 되는 것 같았다. 이 공식 휘장은 조직위원회 전원이 흡족해한 작품이 되었고, 물론 홍보도 하였지만 각계에서 넓게 자발적으로 애용되어 나갔다.

'97년이 시작되기 전에 조직위원회의 작업으로서 표어와 휘장의 작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위원 모두에게 적지 않은 자신과 용기를 주는 것이 되었다.

[5] "문화유산의 해"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사업을 작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가령 '연극의 해'나 '문학의 해'라 해도 물론 포괄하는 범위가 넓겠으나, '문화유산'은 더 넓어서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문화의 모든 분야를 말함이니 연극이나 문학은 말할 것 없고 유형 무형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된다.

'문화유산'이나 '문화재'나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공식적 범적으로는 문화재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는데, 그 포괄 범위는 문자가 상식적으로 시사하는 범위보다 훨씬 넓었다. 즉 현행의 '문화재보호법'이나 현재의 정부직제상의 '문화재관리국'이 관장하는 업무나 모두 극히 광범하다.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각종의 유물들이나 유적지가 문화재임은 물론이요, 형태는 없지만 옛날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연예 습속 등에서의 기능들도 문화재요 갖가지의 민속자료들도 여기에 포함되며, 거기다가 인간생활과 관련되어 오던 자연환경으로서 명승지와 또 천연기념물도 문화재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라고 해서 꼭 무슨 재물같이 눈에 보이고 손에 짚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도 같은 뜻이라 하겠다. 그러나 유네스코가 1972년에 여러나라와 체결한 협약에서는 실제적 필요에 의해서 많이 제한해서 사용하고 있다. 즉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서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무형문화재는 제외시켰고

또 유형문화재 가운데서 동산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물품들도 제외하고서, 주로 역사와 인공이 깃든 건조물과 유적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니 여기의 문화유산은 그 범위가 자못 좁아져 있다.

그러나 법적인 용례나 유네스코 협약에서의 용례를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로서는 문화재라면 주로 유형의 유물들을 뜻하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 문화유산이라고 해야 유형 무형의 전통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따라서 금년을 문화유산의 해라고 했을 때 그 범위는 넓게 이해되어야 이를 정한 취지에 맞는 것 같다. 조직위원회는 문화유산을 물론 이런 넓은 뜻으로 이해하였다.

다만 실제 사업을 행하는데 있어서는 범위가 넓다는 것이 그만큼 일이 많아짐을 뜻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예산으로서 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 10억원이 배정되었으나 국고지원은 없었으며, 이는 7년전에 이런 종류의 첫 번째 행사때의 액수와 같은 것으로, 오히려 외부로부터 그것 가지고 뭇을 할수 있겠는가고 동정쉬인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산 액수가 적다는 걱정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더구나 금년의 사업도 1회성의 형식적인 행사로 그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언론으로부터도 걱정이 있었고 우리 자신도 그런 우려를 완전히 떨치기 어려웠던 처지였다.

[6] 조직위원회가 먼저 결정한 것이 사업의 기본적 목표와 방향이었다. 몇차례의 회의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서 이를 12월 18일 기자간담회의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기본 목표 : -\* 문화유산의 애호에 대한 국민의식의 제고

\* 전통 문화유산의 현대적 계승

\* 문화유산 보존 관리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기본 방향으로는

첫째로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되 되도록 민간단체나 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토록 한다.

둘째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셋째로는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려는 애호정신이 국민의 의식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서 이런 기본방향에 따라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서는 역시 세가지로 설정하였다. 즉

문화유산 알기. 찾기. 가꾸기 사업

문화유산 관리의 제도 및 관행 조사 평가

문화유산의 홍보의 집중 전개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에 바탕을 두고, 그리고 공모로 정했던 표어인 알고, 찾고, 가꾸자의 구호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할 사업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틀을 만들었다.

#### 1. 문화유산 알기 사업

○ 내고장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

○ 문화유적 테마 관광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문화유산 소개 자료 제작 국내외 보급
- 역사의 현장 재조명 행사 등
- 2. 문화유산 찾기 사업
  - 보존대상 문화유산 찾기운동의 전개
    - 알려지지 않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찾아서 보존을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한다.
  - 전통 무예, 놀이 및 생활 문화유산의 재현
    - 마상 무예, 격구 경기의 조사 재현
    - 전통 시가회, 놀이 문화의 현대적 보급 등
- 3. 문화유산 가꾸기 사업
  - 각급학교 학생들의 문화유산 보호 자원봉사활동 적극 참여유도
  - 문화유산 명예관리인 제도의 내실화
  - 문화유산 관리 유공자 발굴 등
- 4.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제의 합리적 개선
  - 문화 유산의 보존 관리의 제도와 관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 방향과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7] 이렇게 해서 조직위원회는 이미 사전에 상당한 준비를 하고서 1997년 1월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97 문화유산의 해' 출범을 알리는 선포식을 성황리에 갖고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조직위원회가 직접 주최하는 사업들에다가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문화재관리국이 추진하는 사업까지 포함시키면 총 100여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로서 수행에 어려움이 생긴 것도 있고 또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협찬사를 구하지 못하여 성사되지 못한 것도 있어서 취소한 사업도 있고,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채택된 사업도 있다.

사업의 내용별로 보면 문화유산의 알기 사업과 찾기 사업, 가꾸기 사업 그리고 기념 행사 및 홍보사업, 조직위원회 후원사업 등이 기획·추진되고 있으며, 그밖에도 전국적으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추진한 사업들로서 조직위원회에서 직간접으로 후원하고 격려하여 금년도 사업과 연관이 되는 것을 무려 1,3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사업은 아직 진행중이고 완결되지 못한 것도 있으나 위에 든 것은 앞으로 남은 시일 안에 모두 완결될 전망을 보이는 사업들이다.

[8] 이러한 사업들 가운데서 주요한 것만 몇가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내고장의 문화유산을 알고 가꾸는 전국적인 사업이다. 이것은 조직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어서, 결국 전국의 각급 행정기관,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군 단위로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관내의 문화유적을 되도록 가족단위로 답사하고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 행사를 하게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 500여 기관장에 협조요청의 공문을 보내어서 각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는데, 그 뒤 인천광역시, 남양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국 각지에 지정되어 있는 4천여명에 달하는 문화재 명예관리인에 대해

서 더 내실있는 대우가 필요함을 인정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담은 수첩과 패용할 배지를 제작하여 나누어 주게 하고, 조직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담당문화재를 정밀 점검하여 결과를 통보토록 하였다. 이에 대한 회신이 다수 들어와 있으며 현상에 대한 보고와 함께 관리당국에 대한 불만과 질책도 있어서 참고자료가 된다. 한편 지방 기관장들에게 이들에 대한 배려를 중용하는 공한을 보내고 아울러 문화재 보존·관리의 유공자를 선정 추천토록 하여 이를 포상할 계획이다. 또 이들의 전국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2백여명의 참석으로 문화재 관리의 실무교육과 의견 교환 등을 실시하였다. 이런 전국대회는 앞으로 정부측에서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들에게 다소나마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상의 뒷받침이 정부당국에서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또 청소년들의 문화유산 인식을 높이는 사업으로는 지역 사업 외에, 자원봉사활동을 중용하는 행사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지역별, 주제별로 최신의 답사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컴퓨터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 주제별로 답사안내를 엮은 책자, '문화유산을 찾아서 - 주제가 있는 답사 -'를 발간하여 널리 배포중에 있다. 이와 아울러 믿을 수 있는 안내도인 '문화유적 지도'를 한국문화보호재단의 주관으로 제작하여 멀지 않아 배포하려 하고 있다. 이 모두는 문화재 답사를 위한 체계적인 길잡이로 활용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순한 관광적인 답사가 아니라 문화재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전문적인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깊게하는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공무원 연수생 및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들에게 실시하였다. 또 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안내 답사도 정기적으로 매월 진행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우리의 문화유산 5개처에 관한 설명 책자를 삼성문화재단의 협조를 얻어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제작 배포하여 이런 문화유산을 국내외에 더욱 선양하는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역사 현장을 순례하며 의미를 제조명하는 학술경연의 모임들도 개최되었으니, 3·1운동과 제암리교회 사건, 대한제국 100주년을 맞는 덕수궁과 주변 문화유산 답사,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선사와 인각사(麟角寺)유적답사 등이다.

[9] 새로 문화유산을 찾는 사업으로서 해남의 금쇄동(金鎖洞)유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고산 윤선도가 「산중신곡」과 「금쇄동기」를 저술한 곳임이 확인되고 조경학상의 가치와 국문학상의 학술가치가 큰 유적으로서, 앞으로 보존과 문화재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 판정되었다.

또 거의 소멸되어온 전통적인 마상무예(馬上武藝)와 격구(擊毬)경기를 재현하였다. 말타고서 활쏘고, 칼 창을 휘두르는 마상무예는 조선시대 무과시험의 기본과목이었고, 승마해서 재주를 부리는 '마상재(馬上才)'는 조선통신사 일행에 포함되어 일본인들의 큰 구경거리였다. 그리고 현대의 폴로 경기와 흡사한 승마 경기인 격구는 조선시대에 내려와서도 궁중에서 자주 행해지는 경기행사였다. 조선 중기이후에 끊어져버린 이 기마 무예의 전통을 현대에 되살리려고 노력하였다. 다행히 마상무예는 이미 이를 추구하던 기특한 단체가 있어서 재현이 비교적 수월하였으나, 격구는 '무예도보' 등의 기록을 근거로 전문가와 승마자들이 새로 어려운 시작을 해야 했다. 다행히 한국마사회의 협력을 얻어서 재현이 되어 지난 5월 15일 과천 경마장에서 경마문화재 기간동안에 처음 선을 보일 수 있었고, 10월에는 대구의 달구벌축제와 그리고 익산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각

각 개막식 행사로 참여하여 이제 재현의 시작은 이룩된 셈이다.

[10] 조직위원회가 작성한 사업중 주요한 것의 하나는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환경과 제도의 개선이었다. 각종의 개발공사에 따른 매장 문화재의 파괴를 예방 혹은 구제함으로써 이를 보존하는 문제는 실제에 있어서는 극히 어려운 여러가지 상황에 얽히게 된다. 이에 대처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필요한 개선을 고안하고 법제화하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그중에서 역사적 문화환경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칭 '역사고도 보존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하려고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용역으로 의뢰하여 이의 작성을 추진중에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사례들까지 조사중이며,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제한조치 뿐 아니라 시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

또 하나의 주요 사업은 '문화유산헌장'의 제정이다. 본래에는 생각되지 않았던 사업인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문화유산의 문제를 협의하는 가운데서 유네스코측에서 발안했던 것이고, 이를 받아서 조직위원회가 검토끝에 7월의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다. 문화재 보호를 국민적인 관심으로 확산시키고 각자의 다짐으로 삼기위해서 헌장의 제정은 필요하며 조직위원회가 이를 주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문화유산헌장의 제정 주체는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맡으며 이에 정부의 문화체육부·교육부·내무부·환경부·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헌장 문안의 기초를 위해서는 외부인사로 이어령·서기원·최종호씨를 내부위원으로는 한병삼·반영환·신찬균 위원을 위촉키로 하였다. 헌장초안은 확정되어 현재 조직위원회로부터 정부측으로 넘겨졌으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이 되면 문화유산의 해 폐막식에서 공포될 예정이다.

[11] 당초의 계획으로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거나 폐기된 것도 있다. 가령 조선시대의 특색 있는 통신제도라 할 수 있는 봉수(烽燧)를 재현하여 산봉우리에서 봉화를 연속적으로 올려서 서울까지의 통신전달을 실험하는 행사도 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비용과 인원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협찬사를 구하지 못해서 포기되었다.

경주에 남아있는 포석정의 유적에서 유상곡수(流觴曲水)의 시가연회(詩歌宴會)를 재현해보는 시도도 포기되고 말았다.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서 시를 짓는 운치있는 연회는 고대 중국과 일본에 퍼져 있었으나, 당시의 실제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은 경주뿐이다. 그런데 일본의 정도에서는 오늘날도 이를 매년 두 차례 행하고 있다. 현대의 시조 사회로 이를 재생하려는 시도는 지방의 협조 부족과 협찬자의 구득난으로 역시 포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유산 백일장 및 그리기 대회도 시도되었으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협찬사가 후퇴하고 말아서 구현되지 못하였다.

[12] '97 문화유산의 해'는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고 또 끝났다 하더라도 주관자 자신이 그 성과를 평할 처지는 아니다.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

재로서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주어졌다는 점과, 특히 언론사들이 거의 모두 문화유산에 관련된 특집이나 방영 또는 행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각자의 주관에 의한 각자의 사업이었지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으나, 금년의 우리나라의 문화계 전체로 볼적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의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할 수 있다.

금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한 정부측의 결정이 시의에 적절하였고, 이를 위해 생겨난 조직위원회로서도 일년간의 활동과 업적을 뒤돌아 볼적에 저으기 보람과 자긍을 느끼게 되는 바이다.(1997. 10.31)